가부장적인 멕시코 마초 문화에서 성평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멕시코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교 법학 석사

김민주

(출처: 멕시코 상원의원 홈페이지)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많은 국가들의 가장 큰 문화적 공통점 중 하나는 무엇일까? 언어? 식문화? 노래와 춤? 많은 공통점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유사성 중 하나는 바로 마초 문화라고 볼 수 있겠다. 스페인 레알 아카데미[1]는 단어 '마초(Macho)'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기 고유의 성별의 특성, 특히 힘과 용기를 분명하게 지닌 남성.[2] 멕시코는 마초 문화(마치스모, El Machismo)가 아주 강한 국가 중 하나로 많은 남성들에게 어릴 적부터 가장에 대한 책임감,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부담감과 권위 의식이 심어져 있고, 가정 내 불평등 등에서 비롯된 남성중심문화 혹은 남성우월주의가 은연중에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 특

1) 스페인 레알 아카데미는 1713년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설립된 문화, 학술 기관으로 스페인어에 관한 연구와 스페인어 규정을 담당하는 스페인의 공공기관이다. 많은 스페인어권 국가들이 각자 사용하는 단어나 문법이 다르지만, 언어와 관련된 논쟁이나 의문이 있을 때 기준으로 삼는 기관이다.

2) Macho: Hombre en que supuestamente se hacen patentes las características consideradas propias de su sexo, especialmente la fuerza y la valentía https://dle.rae.es/?id=NndQJAy|Nnghkls (출처: 스페인 레알 아카데미)

히 원주민 공동체의 경우는 이 마초 문화가 원주민의 전통, 관습으로 내려와 원주민 여성과 남성 사이에 많은 성적 불평등 사례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마초 문화가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던 멕시코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었다. 정치권과 공직에 진출해있는 많은 멕시코 여성들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남성과 동등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온 결과,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작년에 여성계가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에서 1.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기타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2. 헌법 전문에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포함, 3.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보장의무 명기를 요구했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 주권을 실현하겠다고 하면, 국민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들의 시민적 권리도 실현되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보장은 여성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3]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현시대의 흐름은 전 세계 어디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는 것인 만큼 멕시코에서는 성평등을 위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근 멕시코의 개헌 상황과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성평등과 관련된 멕시코 헌법 조항의 개정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멕시코 상원은 총 참여 투표수 455표로 멕시코 헌법의 9개 조항 개정을 승인했다. 상원의원장인 마르티 바트레스(Martí Batres)는 이번 헌법 개정이 멕시코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본 헌법 개정은 멕시코 삼권(행정, 사법, 입법), 자치기관, 주(州)정부와 시(市)정부를 형성하는 모든 공무원 및 구성원 사이에서의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멕시코 모든 국가 공기관에서는

3)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17052#cb
(출처: 오마이뉴스 2018년 3월 23일자 기사)

남녀평등 원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본 승인은 멕시코 헌법 제2조, 제4조, 제35조, 제41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94조와 제115조 개정을 바탕으로 한다. 개정된 헌법 조항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개정되기 전 제2조 VII항 A는 원주민 지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원주민의 권리로 본인들의 대표자를 선택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개정 후, 제2조 VII항 A는 "원주민이 있는 지자체에서 법에 상응하는 성평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본인들의 대표자를 선택한다."[4]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후 제4조 첫 번째 문단은 "여성과 남성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이 조항은 가족 발전(계획)을 보호한다."[5]고 명시한다. 본 조항은 헌법에서 사용하던 '남성'이라는 단어를 바꾼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는 본 조항에서 'El Varó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El Homb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El Varón'은 공식적인 서류에 성별을 기입할 때, 특히 남성임을 나타내야 할 경우에 사용하던 단어로 '수컷'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동물에게 사용하기도 한다. 남성우월주의와 마초 문화를 대변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단어가 헌법에 사용되었다는 것에 여성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람으로서의 남성을 나타내는 'El Hombre'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 두 조항은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으로 법 앞에서 모두의 평등,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마초 문화가 지배적인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 여성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대헌장, 카르타 마그나(La Carta Magna Mexicana)[6]에서 보장하고 있다.

제35조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데, II항에서 "선거를 통한 모든 직책을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평등한 조건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정당에 상응하는 선거 기관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권리는 남성 시민과 여성 시민 모두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 조건, 요소들을 충족시키면 독립

4) **Artículo 2.** VII. A. Elegir, en los municipios con población indígena, representantes ante los ayuntamientos, observando el principio de paridad de género conforme a las normas aplicables.
5) **Artículo 4.** La mujer y el hombre son iguales ante la ley. Ésta protegerá la organización y el desarrollo de la familia.
6) 멕시코 헌법을 카르타 마그나/대헌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적인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7]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는 여성 후보자를 나타내는 'Candidatas'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성도 평등한 조건에서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제41조에서는 "연방 행정부와 그와 동등한 연방 공공기관의 직책을 임명할 때, 법률이 성평등의 원칙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방식과 양식을 규정할 것이다."[8]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51조 I항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정치 정당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정치 정당의 입후보자 모집에 있어 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II항에서는 정치 정당이 성평등의 원칙을 장려하며 입후보자들을 위해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9] 제41조와 제51조에는 '성평등의 원칙'(Paridad de Género)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엄격한 원칙 준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제52조는 하원 의원 선출에 대한 조항인데, 여성 명사인 'Diputadas'와 남성 명사인 'Diputados'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다.[10] 스페인어는 문법상 남성과 여성이 섞인 여러 명을 지칭할 때나 많은 법 조항에서 남성 명사를 대표 단

---

7) **Artículo 35.** Son derechos de la ciudadanía:
II. Poder ser votada en condiciones de paridad para todos los cargos de elección popular, teniendo las calidades que establezca la ley. El derecho de solicitar el registro de candidatos y candidatas ante la autoridad electoral corresponde a los partidos políticos, así como a los ciudadanos y las ciudadanas que solicitan su registro de manera independiente y cumplan con los requisitos, condiciones y términos que determine la legislación...

8) **Artículo 41.** … La ley determinará las formas y modalidades que correspondan, para observar el principio de paridad de género en los nombramientos de las personas titulares de las secretarías de despacho del Poder Ejecutivo Federal y sus equivalentes en las entidades federativas. En la integración de los organismos autónomos se observará el mismo principio. …

9) **Artículo 51.** I. Los partidos políticos son entidades de interés público; ... En la postulación de sus candidaturas, se observará el principio de paridad de género. … II. Los partidos políticos tienen como fin promover la participación del pueblo en la vida democrática, fomentar el principio de paridad de género, contribuir a la integración de los órganos de representación política, y como organizaciones ciudadanas, hacer posible su acceso al ejercicio del poder público, de acuerdo con los programas, principios e ideas que postulan y mediante el sufragio universal, libre, secreto y directo, así como con las reglas que marque la ley electoral para garantizar la paridad de género, en las candidaturas a los distintos cargos de elección popular. Sólo los ciudadanos y ciudadanas podrán formar partidos políticos y afiliarse libre e individualmente a ellos; por tanto, quedan prohibidas la intervención de organizaciones gremiales o con objeto social diferentes en la creación de partidos y cualquier forma de afiliación corporativa.

10) **Artículo 52.** La cámara de Diputados estará integrada por 300 diputadas y diputados electos según el principio de votación mayoritaria relativa, mediante el sistema de distritos electorales uninominales, así como por 200 diputadas y diputados que serán electos según el principio de representación proporcional, mediante el Sistema de Listas Regionales, votadas en circunscripciones plurinominales.

어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헌법 개정으로 여성 하원 의원을 지칭하는 단어와 남성 하원 의원을 지칭하는 단어를 각각 동시에 헌법에 명시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우선 적힌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제53조에서는 하원 선거구의 구분과 규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200명의 하원 의원은 비례대표제와 지역 명부(Listas Regionales)에 의해 선출되며, 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선거 주기마다 번갈아가며 등록하여 5개의 선거구를 구성한다."[11]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6조는 같은 맥락으로, 상원 의원 선출에 대하여 여성 명사인 'Senadoras'와 남성 명사인 'Senadores'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있고, "각 선거 기간마다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가며 명단에 등록하도록 한다."[12]고 규정한다. 유사한 맥락으로 제94조 세 번째 문단과 여덟 번째 문단은 멕시코 대법원의 구성원을 여성 명사인 'Ministras'와 남성 명사인 'Ministros'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 법이 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며 사법기관의 통합을 위해 그 양식과 절차를 규정한다."[13]고 명시한다. 제115조 I항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각 시[14]의 선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 명사인 'Presidenta'와 남성 명사인 'Presidente'라는 단어를 명시하였고, "선거를 통해 구성원을 선출하며 이 때 성평등의 원칙을 따른다."[15]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멕시코 헌법 개정 조항들의 단어나 일부 문장의 수정으로만

---

11) Artículo 53. … Para la elección de los 200 diputados y diputadas según el principio de representación proporcional y el Sistema de Listas Regionales, se constituirán cinco circunscripciones electorales plurinominales en el país conformadas de acuerdo con el principio de paridad, y encabezadas alternadamente entre mujeres y hombres cada periodo electivo. …

12) Artículo 56. La Cámara de Senadores se integrará por ciento veintiocho senadoras y senadores, … Las treinta y dos senadurías restantes serán elegidas según el principio de representación proporcional, mediante el sistema de listas votadas en una sola circunscripción plurinominal nacional, conformadas de acuerdo con el principio de paridad, y encabezadas alternadamente entre mujeres y hombres cada periodo electivo. …

13) Artículo 94. …La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se compondrá de once integrantes, Ministras y Ministros, y funcionará en Pleno o en Salas. … La ley establecerá la forma y procedimientos mediante concursos abiertos para la integración de los órganos jurisdiccionales, observando el principio de paridad de género.

14) 멕시코 지방 행정 구역 단위는 주(州)인 Estado와 시(市)인 Municipio로 나뉘어진다. Municipio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구역이다.

15) Artículo 115. I. Cada Municipio será gobernado por un Ayuntamiento de elección popular directa, integrado por un Presidente o Presidenta Municipal y el número de regidurías y sindicaturas que la ley determine, de conformidad con el principio de paridad. ...

느껴질 수 있지만, 멕시코에서는 스페인어의 특성상[16] 남성을 대표하는 단어만 명시하던 헌법에서 여성을 대표하는 단어를 명확히 표기함에 따라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에 도전하고 불공평한 성차별과 싸우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헌법에 '성평등의 원칙'(Paridad de Género)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원칙이 모든 입후보자 등록부터, 선거 과정이나 공직 취임까지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공공기관은 본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에 살펴볼 멕시코 대법원의 공직과 관련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 헌법 개정이 여성의 공직 진출에 있어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 멕시코 대법원의 여성 공직자 성차별에 관한 판결 사례

본 판결문들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문들로 여성 공직자나 여성 후보자 선출에 대한 마초 사회의 차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판결문의 주인공들은 로사 페레스 페레스(Rosa Pérez Pérez)라는 치아파스(Chiapas)주 산 페드로 체날호(San Pedro Chenalhó)시의 시장직에 출마해 당선된 여성 시장과 와하카(Oaxaca)주 산 바르톨로 코요테펙(San Bartolo Coyotepec)시 원주민 공동체의 여성 구성원[17]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마초 문화가 지배적인 원주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대법원에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판결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특히 로사 페레스 페레스의 사례는 이번 헌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녀는 녹색당(El Partido Verde)의 후보자로 치아파스(Chiapas)주 산 페드로 체날호(San Pedro Chenalhó)시 시장직에 출마하였고, 2015년 7월 19일 선거에서 8332표를 얻어 제도혁명당(PRI)의 후보자를 이기고 시장에 당선되었다. 2015년 10월 1일 그녀는 시장직에 취임했으나

16) 스페인어 문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포함된 복수 주어를 사용할 때, 남성 명사 복수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남성 상원 의원과 여성 상원 의원을 동시에 포함하는 복수 주어는 남성 명사의 복수 형태인 'Senadores'를 사용한다.

17) 대법원 판결문에서 익명으로 표기하고 있어 익명으로 표기함.

2016년 5월 25일 치아파스주 의회에 사임을 표명했다. 치아파스주 의회는 제216령(El Decreto 216)을 통해 그녀의 사임 요청 건을 평가한 후 사임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사임 원인은 폭력적인 분위기와 협박 때문이었지만 이 부분은 치아파스주 의회에서 평가되지 않았다. 그녀는 대법원에서 "시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과 방해를 받아왔으며 같은 원주민 공동체의 일원으로부터 시장직 사퇴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일부 원주민 공동체 대표들은 "로사 페레스 페레스가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복귀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녀는 우리에게 많은 해를 가했고, 이런 상황을 묵인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와 조금 달랐다. 원주민 공동체의 실질적인 주장은, 헌법에서 존중하는 자치권에 따라 원주민 공동체는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 폐지 그리고 대체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여성은 통치자 혹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2015년 6월 6일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지역의회 결의를 무효로 하며, 로사 페레스 페레스가 시장직에 다시 돌아가야 하고, 그녀가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당국은 안전, 평화, 안정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로사 페레즈 페레스(Rosa Pérez Pérez) vs 치아파스주 의회 (Congreso del Estado de Chiapas)

사건 번호: SUP-JDC-1651/2016

원고: 로사 페레즈 페레즈 (Rosa Pérez Pérez)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미겔 산티즈 알바레즈 (Miguel Santiz Alvarez)

책임당국: 치아파스주 의회 (Congreso del Estado de Chiapas)

조정 대법관: 콘스탄시오 카라스코 다사 (Constancio Carrasco Daza)

원고의 선거권 및 정치적 자유를 위한 이번 판결은 로사 페레스 페레스가 치아파스 주 의회에서 2016년 5월 25일에 공포한 제216령의 심사 신청을 통

해 이루어졌다. 제216령은 치아파스주 산페드로 체날호시의 시장직을 맡았던 원고의 사임에 대한 건이다.

사실관계: 1. 2014년 10월 7일 치아파스 주의 지역 자치 단체 선거 과정이 시작되었다. 2. 2015년 7월 19일에 시정부 및 지역의회 구성원 선출을 완료, 그 중 산 페드로 체날호시의 시정부 및 지역의회 구성원 선출도 포함되었다. 3. 시정부 선거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통해 녹색당 후보자인 원고의 시장직 당선을 공고하였다. 4. 같은 해 7월 27일 같은 지역 시장직에 출마했던 제도혁명당(PRI) 후보자 산토스 로페스 벨라스코(Santos López Velasco)가 치아파스주 선거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5. 같은 해 8월 31일 치아파스주 선거법원은 녹색당의 대표로 산 페드로 체날호시의 시장에 당선된 원고의 당선 효력이 합법적임을 판결하였다. 6. 같은 해 9월 6일 산토스 로페스 벨라스코는 할라파(Xalapa) 지역 법원에 시민의 선거권과 정치적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할라파 지역법원에 항소하였다. 사건 번호 SX-JDC-848/2015로 접수되었다. 9월 22일 할라파 지역법원은 치아파스 주 선거법원이 결정한 판결문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7. 2015년 10월 1일, 원고는 치아파스주 산페드로 체날호시의 취임식을 가졌다. 8. 2016년 5월 25일 치아파스주 의회는 그 여섯 번째 정기회의에서 원고의 산 페드로 체날호 시장직 사임을 승인하였다. 9. 2016년 6월 6일, 원고는 연방 행정 선거법원의 대법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 및 선거권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는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원칙에 따라 유엔 여성기구(UN Women) 멕시코 대표자의 진술을 허용하였고, 폭력적인 분위기와 협박을 받았다는 원고의 진술을 증명할 비디오 녹화본을 받아 증거 심사를 하였다. 같은 해 8월 4일, 대법원은 84명의 시의원과 구성원, 11명의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받았고, 이들은 모두 산페드로 체날호시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원칙에 따라 대법정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류학 전문 감정인의 진술을 통해 원주민들의 진술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게 되었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본 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원고가 법에서 규정하는 직접 선거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장에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임하도록 "강요" 받아 서류에 사임을 하게 만든 것은 명백히 공동체 일부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분위기이다. 원고는 이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자의와 상관없이 시장직에서 사퇴해야만 했다. 이는 명백히 멕시코 헌법 제2조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는 조항과 제41조 VI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 절차의 보장과 선거권, 피선거권, 단체를 만들 권리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는 '연방사법조직법'(Ley Orgánica del Poder Judicial de la Federación)과 '선거분야소송절차제도일반법'(Ley General del Sistema de Medios de Impugnación en Materia Electoral)의 일부 조항들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년 5월 25일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San Cristobal de las Casas)로 피신해야만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성에서 비롯된 성차별이 폭력적인 상황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치아파스주 의회에서 원고의 시장직 사임을 승인한 제216령을 무효로 선고하고, 또한 원고에 대해서는 시장직으로 복귀하여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당국은 원고가 공직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고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헌법에서는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 폐지, 대체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헌법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다시 한 번 개인의 인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

리,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우선으로 하며, 원고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직에 선출되었으므로 모든 절차와 결과를 헌법을 통해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다. 이 사건은 멕시코 와하카(Oaxaca)주 산 바르톨로 코요테펙(San Bartolo Coyotepec)시에 살고 있는 아프로멕시칸[18] 원주민 공동체 여성 구성원이 신청한 사건이다.

(2) 원고 vs ******

사건 번호/원고/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책임당국/조정 대법관: ****** 으로 표기[19]

사실관계: 1. 2013년 10월 20일 와하카(Oaxaca)주 산 바르톨로 코요테펙(San Bartolo Coyotepec)시에서 광장에 830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과 시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원주민 공동체 총회를 개최하였다. 2. 원고는 총회 참석자 명단 131번으로 등록한 여성이다. 3. 총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과 시의원 후보가 모두 남성이라는 점에 여성 구성원들이 이의 제기를 하였다. 여성들 역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같은 조건 하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항의하며 총회를 중단시켰다. 4. 남성 구성원들은 “여성은 이런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며 언쟁을 했다. 5. 총회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들이 여성의 참여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 결국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투표를 진행, 시장과 시의원들을 선출했다. 6. 여성 구성원들은 와하카 선거 및 시민 참여 위원회에 본 선거의 정당성을 확인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여성들이 차별받은 상황에서 진행된 선거가 불공평하며 여성들을 후보자에 포함해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7. 여성 후보자가 포함된 가운데, 재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남성

18) 아프리카계 멕시코 원주민을 지칭함.
19) 대중에 공개되는 대법원 판결문에 ******으로 (익명) 표기되어 있음.

구성원들만 선출되었다. 8. 여성 구성원이 와하카주 선거 법원에 재선거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과정을 거친 적법한 재선거였다는 판결을 내렸다. 9. 여성 구성원은 와하카주 선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대법원에서는 "헌법이 원주민의 권리와 원주민 공동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따라 공동체는 자신들의 규정, 과정, 전통적인 관행/습관, 자신들의 통치 권위자나 대표를 뽑을 권리가 있으며, 이 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조건 아래 그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20] 또한, 비록 재선거를 진행했지만 참여한 여성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시장과 시의원들의 선출 과정에서 성차별을 당했고, 재선거에 여성 후보자들이 등록되기는 했지만 원주민 공동체 총회 당시의 분위기, 남성 구성원들의 발언, 언쟁 등을 고려했을 때 성평등의 원칙을 고수하며 재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와하카주 선거법원이 적법한 재선거였다고 판단한 판결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처럼 멕시코 사회에서, 특히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피선거권이나 정치적 자유, 공직취임권 등은 동등한 요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차별을 받아왔다. 원주민 공동체는 항상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신들의 '자기결정권' 혹은 '전통과 관습'을 핑계 삼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성 차별과 여성을 향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등을 정당화해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주민 공동체의 자기 결정권이나 전통, 관습보다는 여성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주민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20) Se prevé el reconocimiento y se garantiza el derecho de los pueblos y las comunidades indígenas del Estado de Oaxaca a la libre determinación expresada en la autonomía para decidir sus formas internas de convivencia y organización política, así como para elegir, de acuerdo con sus normas, procedimientos y prácticas tradicionales, a las autoridades o representantes para el ejercicio de sus formas propias de gobierno, garantizando la participación de las mujeres en condiciones de igualdad frente a los hombres, en un marco que respete la Constitución Federal, la Constitución Estatal y la Soberanía del Estado.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사건은 분명히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특히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 받아왔던 성차별 사례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한 여성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장직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남성 구성원들의 협박과 강압에 이기지 못해 시장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피해야 했다는 사실이 민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장이라는 권력을 가졌던 여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회적 위치에 있지 못한 여성들에게는 더한 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많은 매체를 통해 여성들에 대한 살인, 강간, 강도 등의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 멕시코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그들의 안전이 어떤 위협을 받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있는지 등을 보여주는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많은 성차별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으며, 이런 싸움과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헌법 개정의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헌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공공 기관에서의 성차별이 점차 줄어들기를 바라고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또한 이런 변화를 통해 성차별과 성을 바탕으로 한 폭력적인 분위기를 일으키던 멕시코 마초 문화의 해로운 부분이 사라진다면 멕시코 사회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